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7월 13일(금) ... (율력 6월 1일) ... Пятница 13 июля 2018 г. № 27(11679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체호브 책 <사할린 섬> 박물관 마당에서 펼쳐진 <행복한 가족> 그림 전시
여름 끝 무렵까지 관람 가능**

지난 8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가정·사랑 및 충성 날 기념 <행복한 가족> 그림 및 에세이 지역 콩쿠르의 발표·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콩쿠르는 사할린주사회원, 아.체호브의 <사할린 섬> 책 박물관, 사할린주민연합회,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교구가 개최했다. 민족연합회의 단체회원으로서 이 콩쿠르에 사할린주한인회도 적극 참가했다고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이 밝혔다.

주최 측에 의하면 콩쿠르에는 사할린주의 16개 구역을 대표하는 500여 명이 참가했고 그림 800여 장과 에세이 25작품이 접수됐다.

▲ 체호브 책 <사할린 섬> 박물관 북쪽 울타리에 소개되는 <행복한 가족> 그림들은 여름 끝 무렵까지 전시된다. (취재: 이에식 기자)

사할린 선거위원회, 당소속 주두마 의원 후보 등록

사할린주 선거위원회가 이번 주두마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정당소속 주두마 의원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제9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무소속 후보자들은 출마서류를 7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투표는 2018년 9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후보로 5명이 등록되었다.

<예지나야 러시아>당에서 알라 류비모와, <자유민주당>에서 건축회사 사장 알렉산드르 워로파이, <스프라웨틀리와야 러시아>당에서 <승객 운송국>코르사코브 기업 사장 알레리 야쿠벤코, <러시아연방 공산당>에서 코르사코브 의사 욱사나 수하노와, <러시

아 공산주의자>에서 당 사할린지부 드미트리 켄킨 지부장 - 각 정당의 대표들이 후보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주두마 의원의 공석은 의원으로 선출되었던 세르게이 포돌란이 사할린주 정부 부수상(모스크바 대표)으로 부임되었기 때문에 생겨났다.

사할린주두마 제9선거구 보궐선거와 동시에 주내 11개 지방자치체 의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는 오하,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티몹스코예, 스미르니흐, 우글레고르스크, 마카로브, 돌린스크, 흠스크, 아니와, 쿠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 구역들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본사기자)

사할린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액화천연가스

지역 상반기 사할린 세관 활동으로 물품교역량은 1000만 톤, 미화 34억 달러에 달했다. 2017년 상반기에 비해 물품 교역량은 41% (7200만 톤) 증가, 대외교역률은 22% (27억 달러) 증가되었다.

교역의 85.4%는 수출로 상반기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수출 품목의 86%는 액화천연가스이다. 액화천연가스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과 대만으로 수출했다.

사할린주의 상반기 6개월간 수입량은 6만 2000톤으로 미화 5억 달러에 달했다. 주로 기계, 장비, 차량이 수입의 73.5% 차지, 그외 수입품목으로는 금속, 직물, 목재, 식료품이 주류였다.

대외무역은 세계 101개국과 이뤄졌고 물품 수출은 59개국으로, 수입은 78개국과 교역이 이뤄졌다고 사할린 세관 측이 전했다.

(사할린세관 홍보실 자료에서)

단신

극동지역 성어기에 사할린 2위 차지

사할린과 쿠릴에서 이미 10구역에서 연송어 성어기가 시작되었다. 7월 11일 성어기는 동부 사할린과 이투루프섬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연송어 어획량으로는 사할린주가 극동지역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타타르해협에서 송어잡이를 하는 업체들이 가장 많이 잡고 있다. 이들은 송어 403톤을 수확했다. 연어는 세웨로쿠릴스크 수산업체들이 가장 많이 어획(587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할린주에서 연송어 총어획량은 2100톤에 달했다.

극동에서 연송어잡이에 가장 선두를 차지하는 지역은 캄차트카(1만4500톤)이다.

최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오토츠크해에서 보다 많은 송어(11억 마리)가 들어와 극동지역 업체들이 연송어 33만9000톤이 아니라 45만 톤을 어획할 수 있을 거라고 연구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주정부, 쿠릴 구역들의 연료 공급에 협조

지난 11일(수) 사할린주 정부에서 있는 회의에서 쿠릴열도에서 난방시즌 준비 문제를 심의했다. 보고는 세웨로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및 쿠릴스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했다. 세웨로쿠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 지자체장들은 디젤, 석탄 등 연료 가격이 인상된 까닭에 전자경매가 취소되는 관계로 제때에 구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려 이에 주정부에서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쿠릴스크 구역에서는 연료 공급이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고 밝혀졌다. 8월에 추가 연료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공급업체와 협상 중이다.

주정부, 스미르니흐 구역 새 시장 협조 약속

이번 주에 사할린주 정부 웨라 셰르비나 수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스미르니흐 구역 시장 대행을 하고 있는 예고르 벨로바바와 만나 스미르니흐 지자체 상황을 논의했다.

아니와시구 부시장, 사할린주 건설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벨로바바는 3개월 전에 스미르니흐 구역 부시장으로 부임했다.

시장 임무를 시작할 때 구역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의 도움, 특히 재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벨로바바 시장 대행은 표명했다.

셰르비나 부수상은 난방시즌 준비, 낡은 주택 철거, 주택 관리 등 문제 해결에 주정부가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사할린 품질통조림 우수 품질로 평가

러시아 품질감독청 전문가들은 <쿠릴스키 베레그(쿠릴 해변)> 품질통조림을 최고 품질 중 하나로 평가했다. 사할린 통조림은 러시아 우수 순위에 올라 1위를 한 제품과 비교해 평점 차이는 0.03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칼리닌그라드, 모스크바, 프스코브, 라잔, 사할린주, 연해주, 그리고 타일랜드에서 생산하는 품질 통조림을 비교연구하고 있다. 사할린주 수산청은 올해 1/4분기에 주내에서 16만4000톤의 품질 통조림을 생산했다고 전했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 기자회견 가져

지난 11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에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현지 매체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시행정부 부서 담당자들도 참여했다. 시장은 우선 6월에 있는 러시아 연방의회 상원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했다. 시행정부로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관광 및 투자의 잠재력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시자료는 유즈노사할린스크로 가져와 <체레모크>여가센터에 소개된다. 누구든 전시물 관람을 할 수 있고 도시의 역사와 현대적 모습, 발전에 대한 전망을 알아볼 수 있다.

기자들은 도시 면모에 많이 궁금해했다. 특히 로가트카강 제방 주변 정비사업, 재건축 기간, 낡은 주택 철거 작업, 주택단지 내 수리작업, 도심 거리와 공원에 화초 심기 등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또한 공공 교통수단, 주택 공공관리 분야에 대한 질문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알렉산드르 그린베르그 부시장이 답변했다. 현재 시에서 일반 버스의 새로운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18번 버스는 옥차브리스크에서 출발점이 되고, 34a번 버스가 새로 운영된다. 작년에 시는 버스 8대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구입할 계획이나 부시장에 따르면 현재 시 일반 버스의 수량은 충분하다.

아나스타시야 키테와 시교육국 국장은 새 학년도 학교 준비상황을 이야기했다. 올해 학교 수리에는 4억2000여

만 루블리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 내 반테러 안전상황도 점검할 계획에 있다. 개학전 학교시설 점검에 대한 접수활동은 7월 23일에 시작하고 8월 10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 9월 1일에는 약 2300명의 아동들이 입학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2295명이 입학신청을 했다.

현재 2-3세 유아들을 위한 유아원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는 유치원의 인원이 가득찬 관계로 2-3세의 유아들 800명이 유치원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새 유치원 건설 계획은 없고 사립 유치원들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들은 개학일, 도시의 날 행사 준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기자회견에서 도시 거리와 소공원, 대중들이 휴식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기물 파손 사례 등을 논의했다. 시민을 위한 공공 장소에서의 문화적 행동을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처벌 강화에 대한 제안도 했다.

시장이 자유로이 질문을 받겠다는 말에 이번 기자회견의 이야기거리는 정말 다양했다.

지난 6월에 매월 시장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두 번째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8월에 이어질 것으로 밝혀졌다. (배순신기자)

사할린주,극동토지분배 신청서 약1만6000건 접수

연방정보시스템<나달니 위스토크.에르에프(러시아 연방 극동지역으로)>에서 <극동 토지분배>프로그램 신청서에 119582건이 접수되었고 토지 4만2100여헥타르가 배분되었다고 극동개발부가 전했다.

신청서상 가장 많은 신청서가 나온 프리모리예 지역은 4만7500여 건 접수, 2위는 사하공화국(야쿠치야) 2만500여 건 접수, 3위는 하바롭스크 변경 1만7400여 건 접수, 사할린주는 4위로 1만5900여 건이 접수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극동 토지분배>프로그램 참가자 40%가 주택 건축을 원하고, 29%는 농산업 경영을, 15%는 개인 별장 또는 개별농장을, 10%는 휴식 및 오락을 위한 곳으로, 6%는 카페, 매점, 주유소 등 영업을 계획하고 있다. <극동 토지분배>프로그램의 단체신청은 1만5600여건에 달했다. 가장 많이 단체신청이 접수된 곳은 5800여 건의 프리모리예, 4600여 건이 접수된 사하공화국(야쿠치야), 하바롭스크변강은 1700여 건이 접수되었다.

<극동 헥타르>프로그램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국유지를 무상분배하는 정책이다.

토지를 배분받은 이들 중에 토지이용의 비적합성이 발견될 경우 토지를 교체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가운데 극동토지분배 정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신청이 승인된 자는 5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택 건설, 농업, 기업활동 등 토지이용 실적에 따라 토지 소유권 또는 장기임대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재외동포재단 제주시대 개막, 16일 업무 개시

13일까지 이전 완료, 서귀포시 업무 시작

이전에 따른 재외동포 불편 최소화 위해 서울사무소 유지

재단(이사장 한우성)은 13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을 완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새로운 사무실은 서귀포시 제2청사(서귀포시 신중로55)를 리모델링해 사용하며, 동포단체지원부, 교육지원부, 차세대사업부, 한상사업부, 홍보문화부, e-한민족사업부 등 8개 부서가 모두 이전을 하게 된다.

재단은 제주이전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자리인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4층에 13명의 직원을 잔류시키고 서울사무소를 운영한다.

부서별 2~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서울사무소는 한국에 입국해 재단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민원처리와 제주본부를 연결하는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우성 이사장은 "올해로 21년을 맞은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사회와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만큼 제주이전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국제도시 제주도와의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이모저모

국제도자기축제, 7월 마지막 주말에 네벨스크에서

7월 27-29일 이틀간 정기 국제도자기축제가 네벨스크 노천 행사장에서 열린다.

9회째 맞이하는 이 행사에서 사할린 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손물레를 돌려 그릇 만들기를 배우기 위해 해안가로 모인다. 시 행정부 홈페이지에는 행사 일정표가 공지되었다.

축제 참가등록은 현지 아동예술학교에서 7월 27일 9시-10 사이에 진행된다. 이후 저녁 무렵 사할린 주민과 방문객들은 바닷가로(베레고와야 거리) 모여 16시에는 도자기를 구울 토대를 설치하고 도자기 만들기 활동교실이 시작된다.

축제 개막기념식은 저녁 9시 30분에 약 30분간 진행되고 이어서 점화 발사와 모닥불 점화, 불꽃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은 새벽 2시까지 사할린의 음악밴드가 출연하는 '대 콘서트'로 마무리한다.

축제 이틀날은 도자기축제의 날로 종일 활동교실에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다양하게 도자기를 만드는 기법, 돌에 그림그리기를 배우게 된다. 휴식시간에는 지역 향토박물관 견학과 저녁에는 밤 늦게까지 디스코텍을 열 계획이다. 7월 29일에는 2가지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된다. 오전 11시-12시에 참가자들은 가마에서 도자기를 꺼내고 14시-16시에는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공개 전시한다. 이번 행사의 전시회, 활동교실 견학 입장은 모두 무료다.

문의 사항은 네벨스크 구역 행정부 전화(8(42436) 62-785)를 바람.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обжига керамических изделий состоится в последние выходные июля

Традицио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обжига керамических издели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состоится с 27 по 29 июля в Невельске. Девять лет подряд сахалинцы собираются на берегу моря, чтобы не просто хорош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на природе, но и научиться создавать предметы на гончарном круге.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я появилась на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ится 27 июля с 9:00 до 10:00 в местной детской школе искусств, после чего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острова соберутся вместе только ближе к вечеру на берегу моря (улица Бере-

говая). В 16:00 там пройдет закладка в основание костра глиняных изделий, а потом начнется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их керамических аналогов.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21:30 и продлится полчаса — за это время пройдет церемония обжига, состоится зажжение костра и в небе появится красочный фейерверк. Завершить первый день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планируют музыкальным марафоном "Большой концерт" с выступлени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групп до двух часов ночи.

Второй ден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будет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посвящен мастер-классам.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научиться расписывать камни и изготавливать керамические изделия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В перерывах островитян ждет экскурсия в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а вечером — дискотека до наступления следующих суток.

Завершается мероприятие 29 июля всего двумя событиями: с 11:00 до 12:00 участники вынимают керамические изделия из костра, а с 14:00 до 16:00 показывают их публике. Вход на все выставк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экскурсии свободный. Все вопросы можно задать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еве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о телефону: 8 (42436) 62-785.

전국 농업총조사, 연말까지 총 8권 출간

2016년7월 1부터 8월15일까지 진행된 <농촌이 잘 살아야 나라가 번영한다>는 표어로 실시된 전국 농업총조사 최종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다.

'2016년에 전 러시아 농업총조사 대상자 수, 노동력과 이들의 특성'이 2권으로 출간되면서 2018년에 계획했던 농업총조사 최종 결과 선집 출간에 착수했다. 6월에는 '토지자원과 활용'이 3권으로 출간되었다. 선집 속에는 전국별, 지방자치단체별 전체 지표들이 실려 있다. 여기엔 2016년7월 1일 작성된 노동력 자원,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등의 노동자의 분포와 농업생산업체들의 수치, 사업유형별, 생산품 판매 부분에 따른 분포와 농업총조사 수치가 나와 있다.

2018년 내에 총 8권의 선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До конца года опубликуют восемь том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ереписи

Начата публикация окончательных итог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ереписи, проходившей с 1 июля по 15 августа 2016 года под лозунгом "Село в порядке — страна в достатк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й на 2018 год выпуск серии изданий с окончательными итогам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ереписи начался с публикации тома II "Число объект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ереписи 2016 года. Трудовые ресурсы и 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В июне издан III том "Земельные ресурсы и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се показатели в сборнике приведены по стране в целом и по ее субъектам. Здесь есть данные о числе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их распределении по вид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доле реализованной продукции, об имеющихся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ах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июля 2016 года, о распределении работников по полу и возрасту, по уровню образования и др.

Всего в течение 2018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опубликовать восемь томов.

우글레코르스크 시민들 '홍차의 날'에 집합

우글레코르스크 시에서 <러시아 홍차의 날>이 진행되었다. 7월 첫째 토요일에 6번째 대규모로 지방명절 행사를 치렀다. 시 행사장에는 동화적 거리의 환상적 시가 펼쳐졌다. - 라즈돌나야 광장, 마스테로바야 거리, 블리노-마슬라나야, 로스피스나야-호츨름스카야, 보가트르스카야, 포르트레트나야, 이그로바야, '커포르스크에 반지', 오프로브나야 뒷골목 등.

가장 기다려지고 고대하던 명절의 한 부분은 블린 너 굽기 대회였다. 가장 숙련된 요리사와 제빵사들의 이름을 건 경연에 명절 역사 이래 기록적인 수의 팀들이 참가해 대결을 벌였다. 16개의 팀들 중에는 구역 행정부, 교육기관, 산업체의 대표들, 모범 연금자, 일반 가족 대표들이 참가했다.

가해 팀들의 작업은 두 가지 심사로 평가된다. 하나는 블리너를 쌓은 높이와 또 하나는 블리너를 시작하는 맛 감정단의 선택을 많이 받는 쪽이 우승하게 되는 것이다. 60센티의 가장 높은 블리너를 쌓은 팀은 '전력 220볼트' 모범 연금자 팀이었고, 주민들의 시식에 따른 선택으로 '햇님'팀(크라노폴리에 2호 유치원)의 젊은 여성들이 우승했다. 우승한 두 팀에게는 러시아 홍차의 날을 상징하는 수제작의 사모와르를 상품으로 전달하고 기념 증서와 상장, 여러 상품으로 시상했다. 또한 나무 숟가락과 마트료시카에 그림그리기 활동교실이 로스피스나야-호츨름스카야 거리에서 진행되었다.

포르트레트나야 거리에서는 대형 사모바르와 주체에 따른 사진찍기 코너도 조성되었다.

라즈돌나야 행사장에서는 대중 축제의 주요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방문객과 주민들을 위한 우글레코르스크 합창단과 무용단이 무대에 나섰다.

'옥차브리'문화회관 전문가인 사회자는 방문객들에게 지루할 틈도 없이 경연을 흥겹게 이끌어갔다. (8면에 계속)

사할린 한인 청소년 "한글 배우고 한국문화 체험... 너무 설레요"

"2년째 한글을 배웠는데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우니 더욱 더 재미있습니다."



입소식을 마친 연수단원들이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제공



4일 경북 구미시청소년수련원에서 황토염색 체험을 하고 있는 모국연수단원.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제공

경북 구미시에 본부를 둔 사단법인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주관으로 3~17일까지 열리고 있는 '러시아 사할린 한인교포 4세 초청 모국연수'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한국어 배우기, 한국문화알기로 설렌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한인교포 4세 24명, 러시아 청소년 4명, 인솔교사 2명 모두 30명이다. 사할린한국교육원이 실시하는 한글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초중고생 위주로 선발했다. 이들은 구미시 선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체류기간 내내 매일 2시간 가량 한글수업을 하게 된다. 협의회는 연수 참가 학생들의 한글 구사능력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 퇴직된 중등교장을 강사로 초청해 회화 위주의 기초 한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한인교포와 러시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세력 육성 차원에서 러시아 청소년들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연수단은 한글, 한국문화, 한국역사 등을 공부하는 틈틈이 구미시 등 경북지역과 부산, 서울 등지를 찾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체 등을 탐방하게 된다.

4일 오전 입소식을 마친 연수단은 11일까지 케이팝 등 한류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 농촌체험, 구미공단 내 삼성전자 견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뽕뽕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어 13, 14일엔 경북도청,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주 석굴암 불국사 박물관 등 경북지역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어 부산 태종대, 용두산 공원, 송도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서울 경복궁, 제2롯데월드, 전쟁기념관 등을 탐방한 후 17일 귀국길에 오른다.

인솔교사인 이진선씨(56·홈스쿨 한글학교 교사)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더 가까워짐에 따라 사할린 현지에서 한국과 한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며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만 50여명이 한글을 배운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의 주역인 김연고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이사장은 "1997년 사단법인 설립 후 2012년까지 거의 매년 사할린 한인교포 청소년 모국연수를 해왔고, 2013년부터는 모국연수와 사할린 현지 청소년캠프를 격년으로 열고 있다"며 "연수 참가 청소년들이 사할린 사회 주역으로 성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 경북도 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외 역사문화탐방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구미=추종호기자)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26호의 계속)

2. 사할린(樺太; 카라후토) 한인의 역사적 배경

2018년 5월 사할린을 방문한 그들의 묘비에는 옛날 그들이 조선을 떠나던 시절의 주소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그들은 죽어서도 조선인이었다는 사실과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묘비에도 남아있는 듯하여 돌아오는 마음이 결코 편하지만은 아니하였다. 왜 일제시대 그 당시 조선인들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사할린으로 가게 되었을까? 실은 오늘날 사할린이란 이름의 땅은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 제국이 북위 50도선 이남의 사할린 섬 남부를 넘겨받아 이 지역에 "가라후토 민정서" 설치하였으며, 일본이 세계제2차대전 패망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사할린섬 남부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게 된다. 이로써 섬 전체가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었고, 현재는 러시아의 영토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 오늘날 사할린의 이름은 일본식 카라후토(樺太)였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 당시에는 러시아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영토로 훗카이도에 맞은 편에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곳에 인력 송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송출이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의사나, 아니면 강제 내지 반강제적인 것이냐에 따라 일본의 책임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1) 사할린으로 건너간 배경

첫째, 사할린에 조선인(그 당시의 국적)이 유입되었던 것은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후, 일본은 조선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여 농촌 토지의 재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시로, 일본으로 식량을 찾아 이주하였다. 게다가 2차대전 중에는 일본인 남자들의 노동력이 부족하여 강제적·반강제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 연행하였다. 그 당시 사할린에는 비교적 임금이 높았던 관계로 여기로 건너간 사람들이 1941년까지 약 8000명에 달하였다고 본다. 가령 그 당시 나미부치(内淵)라는 탄광에서 굴진하는 일로서, 하루 12시간씩 2교대, 감시가 엄격하였으며, 식량지급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거처지도 아주 작은 방, 하루에 7엔 정도, 그러나 실제 임금은 2엔 50전, 그 중 80전은 식대, 게다가 그 나머지는 료장이 관리하는 개인통장에 강제적으로 저금시키고 고향에 송금할 수 있는 돈은 월5엔 정도였다고 한다-한일 간에는 이와 같은 강제저금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있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 이발소에서 하루 일당이 2엔 정도였다고 한다.

두 번째, 조선인이 사할린으로 건너가게 된 원인은, 1937년 시작된 일중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 전쟁' 등으로 수많은 일본인 남자가 징병으로 가버려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1944년 8월 조선총독부의 제국의회에 대한 보고서(帝國議會宛報告書)에서, '국민동원계획을 근거로 1939년 이래 해마다 내지(内地) 남양방면에 조선인노동자를 대량적 송출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자는 어쨌든 국민동원계획산업으로서의 광공업, 토목건설 방면에 취로하며, 내지인 노동자에 비하여 손색이 없으며, 지하노동에 있어서는 그 체격이 월등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2) 인력송출은 자발적인가 강제적인가?

위의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또는 사할린 등으로 건너간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과연 그들이 그렇게 건너간 것이 강제냐 자발이나, 즉 모집이나 또는 징용이나, 혹은 모집이라고는 하나 그 이면에는 강제·반강제적인 면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과, 해방이 되고도 이들에 대한 귀환 내지 귀국 등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등을 현 시점에서라도 파악하고, 양국 정부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조선인 노동자의 동원 근거

우선 1939년 9월 2일,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 모집 요강」과 「조선인 노동자 이주에 관한 사무취급절차」를 제정하여 조선인노동자의 '집단 모집'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일본정부가 전국의 사업주로부터 구인(求人)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각 사업주(주로 탄광, 토목관계의 기업)에게 조선에서 노동자를 모집하도록 군, 면에 할당하여, 각 사업주가 허가된 인원을 모집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비록 '모집'이라고는 하나, 개인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정부가 관여하여 행하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집이란 절

차는 차후에 그 모집 과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므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 모집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면사무소와 주재소는 할당된 인원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모집 담당자와 같이 그 관할하의 각 가정에 '응모'인수를 할당하여, 이를 회피하는 가정에는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여 응모에 응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집과정에서 그 당시 '응모'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1941년 6월에는 총독부 내에 '조선노무협회'가 만들어져 총독부와 이 협회가 일체가 되어 사실상 사람을 사냥하는 경우가 증가하여갔다. 그 당시 일본 관헌에게 절대복종이란 환경에 노출되었던 조선의 농민들로서는 총독부의 면사무소의 직원과 경관이 관여하는 '모집'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일본 내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1945년 3월 말 현재, '징용알선'의 할당 인원수가 약 52만, 그 중 조선으로부터 유입되어온 수가 약 46만으로 약 88%, 이와 비교하여보면 '자유모집' 할당 인가 숫자가 약 20만 중 유입자 수가 약 15만으로 75%에 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징용알선'이나 '자유모집'이란 양자의 방법이 어느 것이나 모두 강제성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유모집이란 용어에는 강제가 아닌 압력이란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그 당시 조선의 상황으로서는 징용, 관알선(관(官)에서 알선한다는), 자유모집이란 용어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응모라고는 하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고 다시 현지에서 징용되었다.

둘째, '모집'과 동시에 조선인노동자를 확보하는 조치는 '관알선'이란 방법이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이래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심각해져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사실상 실시해오던 관민일체의 노동력 확보조치를 법제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1942년 2월 각의 결정에서 「반도인노동자활용에 관한 방책」과, 이것을 받아들인 조선총독부의 「조선인내지 이입알선요강(鮮人内地移入斡旋要綱)」 등이 있었다.

'관알선'이라고는 하나 일본이 조선에서 실시하여 오던 노동자 모집을 사실상 총독부가 관여하는 것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 방법은 각지의 면, 구에다 총독부로부터 모집노동자의 일정 수를 할당하여, 각 구, 면의 담당자들은 관할하의 조선인 가정에 할당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알선'은 실제로는 면의 관리인, 경찰, 노동협회 등으로, 위로부터 하달된 지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 가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응할 것인가 아닐까를 결정할 수 있는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2) 국민징용령

다음으로, 조선인 노동자 동원 방법으로는 국민징용령이었다. 국가총동원 체제하에서 징용령은 일본 국내에서는 이미 1939년 10월부터 적용되어 왔으나, 조선에서는 여전히 민족적 저항을 두려워하여, 그 적용은 형식상으로는 비위두었으나, 집단모집과 관알선이란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전쟁말기가 되어서는 전사자 증대, 징병의 극한 상태가 되어 성인남자의 노동력 부족으로 마침내 조선에도 1944년 9월 경, 징용령을 조선에도 적용하여 강제적으로 조선인을 연행하여 갔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의 계획과 통제하에 조선인이 동원된 숫자가 전쟁 말기의 혼란, 자료의 처분, 분실 등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조선반도 전체에서 동원 계획되었던 수는 약 90만, 그러나 실제로 동원되었던 수는 약 70만이라는 수가 최저라고 본다. 저자에 따라서는 160만이라는 설도 있다. 1942년 당시 조선의 세대수가 약 450만 정도, 그러므로 적어도 6세대 당 한 1명은 강제적 동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 사할린으로 송출된 사람이 약 2만 이상(저자에 따라서는 약 6만) 정도라고 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자료상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본다. 또한 전쟁상황이 악화되어 많은 탄광이 폐쇄되어 1944년부터는 일부(1-2만)는 다시 일본으로 전용되었다(재징용의 문제). 그러므로 종전 당시에는 약 4만 정도의 조선인이 사할린에 남게 되었다고 추정한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반도 남부(현 한국)의 출신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동원의 방법 분류는 후일 일본과의 한일간의 손해배상청구 문제에도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 자료이다.

(다음호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тлично провели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К)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овании Дня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которое состоялось в городском зоопарк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этот день был проведен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состоялась дегустация различны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приготовленных членами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Пак Владимир исполнил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которые порадовали собравшуюся публику. А также чествовали активных членов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 замечательную супружескую пару Кан Софью и Григория, отметивших гранатовую свадьбу.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вместе с нами праздновали армянская, татарская, таджикская и узбекская диаспоры.

Хорошая организация мероприятия, плюс уха от дирекции зоопарка, традиционный татарский чак-чак, десятки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огромные русские пироги, горячий ароматный чай, латиноамериканская музыка и танцы, а также, хорошая погода и солнце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отличному настроению!

Лим Ден Хван,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К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 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реклам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Г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в рам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тура посетила Пусан

С 26 по 30 июня г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в составе 20 человек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Пуса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заимопомощ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резидентом которого на Сахалине является Хюн Док Су, побывали в Пусане. Основной целью тура было знакомство с историей и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в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поехали школьники Егор Жаринов, Вячеслав Квак, Ксения Варфоломеева, Наталья Сон, Александра Соляник. Сопровождали дет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углего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н Бок Суги и член правл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Хе Ген Дя.

Группу разместили в Hotel "Arina" в самом престижном районе Пусана — «Хеундэ». В первый день тура школьники посетили "Народный жилой дом"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Гудук". Их наряд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ханбок, познакомили с обычаями и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Дети научились некоторым национальным играм, а в музее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узнали многое о тяжелой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Вечером на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ужин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тура.

Украшением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о исполнение углегорскими школьниками гимн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есен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знак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приглашение школьники вручили спонсорам подарки, привезенные из России.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хозяина клиники "Бумин" Джона Хун Тхе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бесплат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осмотр на современном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Незабываемой стала встреча с учащимися престижной школы Dong In, где учатся одни мальчики. Дет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слушали лекцию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и посмотрели небольшое выступление, подготовленное ко встрече с ними.



Затем участники поехали на экскурсию в один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океанариумов в Азии — Sea life Busan, который по праву считается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страны.

Особенностью океанариума является 80-метровый тоннель,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ощутить себя на дне океана, над которым бурлит жизнь различных его обитателей. Дети завороженно наблюдали, как над ними проплывают акулы, скаты и другие морские животные.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день состоялась экскурсия в исторический музей Bokcheon, хранящий коллекцию реликвий, раскрывающих традиционную культуру захоронений. Музей порастил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своей содержательностью и масштабностью.

В завершение всей поездки школьники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морскую прогулку на яхте, где их сопровожд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уса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заимопомощ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Джо Ги Джон, сообщили в Углегор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 Программа тура была интересной, насыщенной, познавательной. За короткий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в Корею мы попробовали много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Дети были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обильными, вкусными завтраками и разными десертами. Спасибо спонсорам за чудесный тур, теплый прием.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Любовь Кан, председатель Углего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ДЛЯ ИНТЕРЕСУЮЩИХСЯ ВОСТОКОМ

С 5 июля в российском кинопрокате стартовал фильм Ли Чан Дона «Пылающий» (2018). Фильм может быть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лезен всем тем,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Так, сценарий «Пылающего» создан по рассказу япо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Мураками Харуки «Сжечь сарай» (1982). При этом главные персонажи живут в современной Южной Кореи, а одна из героинь, наполняя свою речь несложными китайскими словами, с юморо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посетителях магазина косметики туристами из Китая.

Уже в первые дни демонстрации фильма, номинанта на Каннскую пальмовую ветвь, появились и первые рецензии (которые при желании можно найти в интернете). Особенно вдумчивых зрителей удивило на экране не оставит равнодушными: в кинокартине причудливо переплелись криминаль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философские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а. Ли Чан Дон, развивая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ое действие вокруг трех молодых героев, ненавязчиво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удьбах зрелых людей.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всем героям свойственны поиски самих себя. И почти все персонажи Ли Чан Дона живут на границе того, что считается в человече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недопустимым или предрассудительным. Вероятно, что именно это и приводит героев к преждевременной смерти, страшному обману или к преступлениям.



Интересно, что самая знаковая часть «Пылающего» происходит на границе между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 в предместье Пхаджу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Многократные картины этого района, где люди живут обычными крестьянскими заботами, несут в себ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мысловой план. Именно в Пхаджу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екращении огня летом 1953 года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Агитационные призывы с северной стороны звучат и в фильме. И именно Бен, с поступками которог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вязан мотив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огня в «Пылающем», задает Джон Су вопрос о методично повторяющихся голосах по радио.

Одни зрители при просмотре фильма могут искать сходства и различия «Пылающего» с рассказом Мураками Харуки «Сжечь сарай» (а это произведение уже можно прочитать по-русски), другие — наблюдать за увлекательной игрой актер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и известный американец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Ян Стивен. Кто-то найдет для себя иной срез оценки этого фильма.

Но, несомненно, наибольшее удовольствие получают те любители кино, которым захочется после знакомства с новой работой Ли Чан Дона (а предыдущим фильмом режиссера была созданная восемь лет назад «Поэзия») попытаться понять значение щедро рассыпанных по всей киноистории разных «метафор» (значением этого слова задаются герои в одном из эпизодов). Литературный план этих аналогий не менее увлекательный. Главный герой фильма Джон Су (одержимый желанием написать роман выпускник литератур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реди всех писателей предпочитает американца Уильяма Фолкнера, а своего оппонента Бена именует не иначе как прославленного Фрэнсисом Фицджеральдом Гэтсби. Эти и другие, наполненные не сразу открываемым смыслом детали, могут вывести зрителя на новые поиски в сравнениях героев и оценки их поступков, которые разворачиваются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вечных «преступления и наказания».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абочая делегация Юга отправилась в Кымгансан

Делегац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отправилась 9 июля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горы Кымгансан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ремонта объ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предстоящей встречей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Возглавила делегацию глава отдела по делам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О Ми Хи. В её состав вошли 22 человека,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и «Хён Дэ Асан» и дру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Работы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до 15 август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час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на месте работ постоянно, другие будут отправляться в разные дни по мер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тороны заняты проверкой списков кандидатов на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е, которыми они ранее обменялись. Сама встреча намечена на период с 20 по 26 августа.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ся дружественный межкорейский турнир по баскетболу

5 июля в Пхеньяне в рамках дружественного турнира по баскетболу состоялись два заключительных матча женских и мужских сборных Юга и Севера. В матче женских команд побед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ки со счётом 81:74, среди мужчин сильнее оказались северяне – 82:70. Если 4 июля во время игр смешанных команд всё проходило в очень дружественной форме, то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стороны по-настоящему померились силами. Спортсмены играли довольно жёстко, сосредоточившись на победе. 12 тысяч болельщиков, заполнивших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имени Чон Чжу Ёна, громким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поддерживали баскетболистов обеих Корей.

Объём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КНДР состави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5,5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ъём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КНДР составил 5 млрд 55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казатель сократился на 15%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содействия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9 июля. Экспорт сократился на 37,2%, составив 1 млрд 770 млн долларов, а импорт вырос на 1,8% до 3 млрд 780 млн долла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ефицит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составил около 2 млрд долларов, что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В KOTRA отмечают, что на такое снижение повлияли санкции СБ ООН. Крупнейшим торговым партнёром Севера остаётся Китай, на который приходится 94,8% всего объём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КНДР - 5 млрд 260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тменило проведение манёвров Ulchi Freedom Guardian

Совмест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манёвры Ulchi Freedom Guardian в этом году проводиться не буду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на состоявшемся во вторник еженедельном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К. Как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им Бу Гём, учения были отмене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няющимися условия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более ранними решениями о приостановке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РК и США». Учения Ulchi Freedom Guardian проводились ежегодно, начиная с 1969 года и делились на два этапа. В ходе первого этапа под названием Ulchi отрабатывались действия по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ущерба, нанесённого жизненно важным объектам. Цель второго этапа,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Freedom Guardian - отработка совместных действи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в случа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торжения. Учения проводились в условиях,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ённых к боевым. Их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укрепление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 альянса. Пхеньян постоянно выступал против их проведения, называя учения «репетицией вторжения» в КНДР. Начиная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учения Ulchi планируются объединить с проводимы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рмией учениями «Тхэгык». В их ходе будут отрабатываться действия по борьбе с терроризмом,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и отражению внешней агрессии.

20 июля в Сеуле стартует «Летний фестиваль Ханган Монттан-2018»

20 июля стартует шестой по счёту «Летний фестиваль Ханган Монттан-2018»,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 Сеульская мэрия. Он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В его рамках в 11 парках вдоль реки Ханган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около 80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Жители и гости столицы смогут в водных играх отвлечься от духоты, царящей в Сеуле. Вечером там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различ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том числе концерты, показы кино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Более 70% программ будут бесплатными. (RKI)

Армия Южной Кореи готовила переворот во время импичмента Пак Кын Хе

В мар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и армия Южной Кореи готовилась объявить в стране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и вывести на улицы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ов страны танки, спецназ и десантников,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попыток повтора смещ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Пак Кын Хе. Для подавления военных демонстраций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рименение воински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Документ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планами, где подробно описано, какие части, как, когда и где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ой и передан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Это скандальное разоблачение сделал Центр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ах Кореи. Власти страны пообещали провести тщатель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 случа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фактов замешанных лиц могут быть признаны виновными в подготовке переворота, измене и приговорены к смертной казни.

Напомним, чт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2016 г. в Южной Корее разразился грандиозный скандал, связанный с вмешательством подруги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в госуправление, а также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ми властью и коррупцией в высших эшелонах власти. Несмотря на извинения и попыт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мять скандал, в стране стали каждые выходные проходить мирные акции протеста,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миллионы людей. В результате, в декабре 2016 г. парламент Кореи объявил президенту Пак Кын Хе импичмент, а в марте 2017 г.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утвердил этот вердикт,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странив Пак от власти. Победу на внеочередных выборах одержал нынешний лидер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Сама же Пак и её подруга Чхве Сун Силь были арестованы и в итоге приговорены к тюремным срокам длительностью 20 и более лет.

Когда на фоне бушевавших в Корею в 2016-2017 гг. массовых выступлений поползли слухи о том, что армия готовится вывести войска на улицы и подавить демонстрации силой, в это не верилось. Хотя именно путем военных переворотов в свое время захватили власть президенты Пак Чжон Хи и Чон Ду Хван, не верилось, что повторение возможно в стране, которая уже прошла этап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Однако, как выясняется, в арм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были те, кто был готов «вспомнить прошлое».

Центр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ах Кореи, сообщивший об этом, ссылается на выявленный в ходе проверки в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е документ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лан реализац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объединённых функций". Согласно ему, в случае отклоне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м судом РК импичмента президенту Пак Кын Хе, планировалось сначала ввести в стране комендантский час, а затем, в случае ухудшения ситуации и нарастания акций протеста, и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В документе подробно расписано, какие именн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куда и когда должны быть направлены. По номерам названы и конкретные части. Так, должны были быть задействованы подразделения 8, 11, 20, 26 и 30 моторизованных дивизий, столичной мотопехотной дивизии, 2 и 5 бронетанковых полков, 1, 3, 7, 9, 11 и 13 воздушно-десантных полк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обирались уделить столице. Например, к парламенту должны были быть направлены 40 танков, 100 бронетранспортеров (БТР) и около 900 солдат. Всего же на Сеул собирались бросит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00 танков, 500 БТР, 4800 пехотинцев и 1400 бойцов спецназа.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взять под свою охрану и контроль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парламент, мэрию Сеул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и площадь Кванхвамун, которая была центром демонстраций протеста.

Считающее самым лучшим отрядом спецназа подразделение №707, на которое в обычное время возлагаются задачи по борьбе с терроризмом и выполнению особо сложных задач в том числе за рубежом, планировалось задействовать, если возник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илой внезапно захватить какие-либо объекты.

Примерно по схожей схеме собирались действовать и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куда тоже выдвигались военные части. Интересно, что в целом собирались задействовать части вне мест их дислокации. Так, для контроля над городами южной части страны собирались бросить дивизии и полки из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ореи и окрестностей Сеула. Например, 26-ю моторизованную дивизию,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ула Янчжу, собирались направить в провинцию Северная Чолла, 11-й полк ВДВ - в провинцию Южная Чолла, 7-й полк ВДВ и столичную моторизованную дивизию - на юго-восток, в провинцию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енсан, 3-й полк ВДВ - в провинцию Канвон и т.д. К столице же подтягивали некоторые части с ю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а также те силы, что были в городах-спутниках мегаполиса.

Как отметили в ЦПЧВСК, указание по подготовке этого плана отдал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им Гван Чжин, который сам в прошлом был военным и широко известен своими консервативными взглядам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дготовкой плана занялась военная разведка,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н генерал-майором Со Хан Воном, который тогда был 1-м заместителем директора Командования во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это структура совмещает функции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и контрразведки - прим. "РГ").

В документе выявлены ряд особенносте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составители понимали, что идею с военным положением могут поддержать далеко не все 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ах РК. Своего рода центром заговорщиков стали Сухопутные силы. Задействовать планировали мото-

пехотные, бронетанковые, воздушно-десант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 также части спецназа, которые входил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структуру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При этом собирались исключить из всех действий части ВМС, ВВС,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и Объединённ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войсками США и РК. Контроль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тоже должен был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командующим Сухопутными войсками, хотя по закону это должен делать начальник Генштаба ВС РК.

В ЦПЧВСК также отметили, что в целом планировалось с учетом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зять под контроль исполнительные и судеб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во главе которых бы встали "офицеры с правильным мировоззрение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ыпускники 42-44-го набора Академии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Кореи. Были названы по именам и вероятные глав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среди военных. Это уже упомянутый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им Гван Чжин,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Хан Мин Гу, директор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Чо Хён Чхон и начальник штаба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Чан Чжун Гю. При этом было подчеркнuto, что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Пак Кын Хе могла знать об этих планах.

Эти разоблачения спровоцировали нов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скандал.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заявили, что проведут проверку сделанных заявлений. Глав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все это напоминает "события 12 декабря 1979 года", когда власть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еворота взял генерал Чон Ду Хван, который стал затем президентом Кореи.

Эксперты указывают, что план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оставле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вляется планом госпереворот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 исключение из плана ряда военачальников, которые, если осуществлять эти действия по закону, должны быть задействованы. Также налиц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олько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и входящего в его состав спецназа. При этом офицеры именно СВ считаются самыми консервативными военным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офицерами ВВС и ВМС. Обратило также внимание и оттягивание сил с потенциально самого опас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 границы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 и переправки частей в крупные гор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Центра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ах Кореи заявили, что они обратятся в прокуратуру с требованием наказать виновных. Юристы же отмечают, что если все это подтвердится, то могут быть предъявлены обвинения в подготовке госпереворота и измене, где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ым наказанием является смертная казнь.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все это затронет и экс-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ая уже приговорена к 24 год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и огромному штраф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На Сахалине этим летом трудоустроят более 5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С начала каникул уже около 2 тысяч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18 лет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заработать.

В свободное от учебы время школьники занимаю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м и озеленением территорий, работают помощниками вожатых в пришкольных лагерях и горничных - в гостиницах, трудятся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библиотеках, архивах.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уются трудовые бригады, где можно освоить столярное и автотехническое дело, аграрные работы. В таких бригадах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получаю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навыки и проходят своего рода профориентацию.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при школе №3 села Огоньки работае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бригада. На средст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гранта закупили теплицы, садовы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онструкции для грядок. Теперь школьники выращивают огурцы, помидоры, перцы, баклажаны, капусту, лук, зелень и даже арбузы.

Урожай отправляется в местный детский сад и школьную столовую. Полезную продукцию приобретают и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Также стараниями ребят пришкольные клумбы радуют распустившимися розами, георгинами и множеством других цветов.

В селе Дальнем на базе детского сада «Бусинка» создали трудовую бригаду по уборке двор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омещений. Но подростки не только наводят порядок. Наставники учат ребят производить мелкий ремонт, помогают освоить кулинарное мастерство.

Приоритетным правом пр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льзуются дети, находящие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ребята из многодетных и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емей, дети-сироты. Пробуют овладеть трудовыми навыками и школьник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За 20-дневную трудовую смену подростк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зарплату от 7 тысяч рублей.

Но ребята относятся к трудовому лету не только как к источнику заработка, но и как к интересному времяпровождению. Летняя занятость для них – это отличная генеральная репетиция взрослой жизни. Это и деньги, заработанны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 первый трудовой опыт, но, прежде всего, – приобретение полезных навыков, трудовая дисциплина. Ребят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устраиваются на работу, заключают трудовой договор, учатся общению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Кроме т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м и воспитательным средством борьбы с детской безнадзорностью и преступностью в период долгих летних каникул,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Бабич.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чти 25 лет служба занят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ежегодно занимается временны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школьников. В 2018 году на организацию трудовой занятости подростков предусмотрено около 6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это в 1,5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пешно действует система работы с казачьей молодежью

Выездное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делам казачества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ось в лагере «Юбилейный» в селе Березняки, где завершилась смена с участием казачат из 15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Как доложила Светлана Французов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воспита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защиты прав детей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бота по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сохранению и развитию казачьей культуры ведется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Сахалино-Курильским окружным казачьим обществом. Действуют 20 объедин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В них заняты около 500 детей. В целях улучшения методического сопровож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е педагоги изучили опыт своих коллег из кадетских корпусов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Смены с казачьим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ст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они дважды. Первая – «Казачок» - во время весенних каникул, вторая – «Казачий сполох» - летом. Содержание программ направлено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у обучающихся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казачьей культуре и ее исторической судьбе, позволяет развивать ценност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России, родному краю.

Показатель качества работы, налаженной в регионе, - результаты участ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азачат в мероприятиях федерального масштаба. Ю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регулярно становятся призерами и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Российского дет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 конкурса «Казачок Тамани» и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игры «Казачий сполох».

На Сахалине вводят доплаты медицинским работникам с большим стаж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законопроект сегодня во втором чтении приня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ума. Доплаты предназначены врача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реднего медперсонала, про-

работавшим на Сахалине или Курилах более 20 лет, при этом не менее половины этого времени -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Есть и требование к возрасту будущих получателей - женщинам должно быть более 50 лет, а мужчинам - 55. Немаловажно, что право на выплату будет сохраняться и после выхода специалиста на пенсию.

Ежемесячную прибавку к зарплате медики начнут получать с 1 января 2019 года. Для врачей (общей практики, терапевтов и педиатров) она составит 11 тысяч 494 рубля, среднего медперсонала (фельдшеров, акушеров и медсестер) – 5 тысяч 747 рублей. В законе обозначен порядок индексации этой доплаты.

Новый вид доплат полагается специалистам, работающим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Основная цель нововведения – обеспечить с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ыми медицинскими кадрами. У нас пока сохраняется потребность в специалистах в амбулаториях,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ах и участковых больницах,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Алексей Пак. - Благодар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труд многих заслуж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тдавших по нескольку десятков лет профессии, будет вознагражден.

Напомним,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ют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и дл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ступ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азмер «подъемных» для врачей составляет от 725 тысяч рублей до 1,3 миллиона, для фельдшеров - от 400 до 600 тысяч рублей, а для медицинских сестер от 270 до 405 тысяч. Величина выплат зависит от района, в который прибывает специалист.

«Золотые медалистов» становитс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больш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ручили золотые медали 87 выпускникам из 12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Лучших учащихся также наградили областными золотыми знаками «За особые успехи в учении» и денежной премией – около 6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еще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отличникам учебы вручалась только федеральная золотая медаль «За особые успехи в учении» и почетный памятный диплом. Но с 2015 года действу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награда.

Из более чем 2,5 тысяч учеников, сдававших ЕГЭ в эт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высшее количество – 100 баллов, получили четыре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а: Моженкова Алина из лицея «Надежда» г. Холмска, Ким Мария из гимназии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еркаченко Анна из лицея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и Богданова Анастасия из лицея № 1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по истории. Выше 90 баллов по всем сданным предметам у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лицея № 1 Юнг Бок и Богдановой Анастасии. Более 80 баллов получили 11 человек.

- Позади годы добросовестного ученического труда, впереди яркая, интересная, полная забот и открытий взрослая жизнь, - сказал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нтон Зайцев.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кренне желает вам успехов, веры в свои силы и таланты, трудолюбия и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собственной судьбе. Мы верим, какую бы профессию вы ни избрали,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вас вернется домой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чтобы достойно трудиться на благо нашего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Нам нужны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о все отрасли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Вместе мы сделаем наш регион еще более успешным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Церемония является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для региона. Это повод еще раз поддержать и поощрить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Растущее количество золотых мед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 это результат большой работы над улуч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егионе.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школы закупается ново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обновляетс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ая база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Уделяется внимание поддержке учителей в вопросах решения жилищных проблем и повышени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се это повышает мотивацию педагогов и усиливает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профессии. Вместе с ростом потенциал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астет и каче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с в городе в этом году пятеро золотых медалистов, - говорит невестка Милена Андрущенко. - Лично для меня эта медаль и награда – очень волнительное и важное событие. Я шла к этому все одиннадцать лет в школе. Спасибо всем учителям и моим родителям за постоянную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у.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я уеду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буду поступать в медицинский институт, н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обязательно вернусь на Сахалин, дом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ниверсаль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зала

С помощью объекта, который возводится на средства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В сентябре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на территории лагеря «Восток» распахнет свои двери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Масштаб строения можно оценить уже сегодня. Площадь главного зала, который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соревнований и для тренировок по волейболу, баскетболу и мини-футболу, - 2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Здесь уже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монтажу освещения и вентиляции, нанесена разметка.

- Наша гордость - паркет, изготовленный из канадского клена, аналогов ему на Сахалине нет,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ТК «Восток» Павел Пашов. - Это самое лучшее и современное покрытие, отвечающее все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тандартам. Кстати, помещение зала универсальное, он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дл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но 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различных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форумов и фестивалей.

Поэтому перед культур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паркет для защиты от механических воздействий будут покрывать специальным материалом. Еще одна особенность объекта – передвижные телескопические трибуны на 1000 зрителей.

Открытие зала позволит возродить на Сахалине такой вид спорта, как большой баскетбол. Вскор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новь появит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баскетбольная команда «Восток-65», которая будет играть в чемпионате России – Суперлиге-1.

Новый объект возводи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осто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жилые корпуса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столовую, рекреационную зону, медпункт, банный комплекс и открытые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Подобных сооружений нет во все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Комплекс «Восток»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будет задействован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А зимой 2019 года он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объектов первых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 «Восток» -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их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нда «Родные Острова» и основной инвестор Александр Кан. - Общий объем вложений - 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Окупить затраты не удастся, да мы и не 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такую цель.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происходит уникальная история: социальн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бизнес вкладывает свои средства в проект,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на людей,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главным капитал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йчас лагерь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к нам поступают предложения о проведении соревнований, организации тренировок островной молодежи, и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наше начинание оказалос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отметил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чествовали пары, прожившие в браке более пятидесяти лет, и вручили им медали «За любовь и верность». Сотни сахалинцев, справившихся на празднике, выразил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свое уважение золотым юбилярам.

- Мы столько лет вместе, что не можем представить как это – жить друг без друга, - говорят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и Светла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Фурсенко. - Никогда не умели ссориться и поэтому живем в ладу и согласии, чего желаем всем супружеским парам.

- Надо уметь идти друг за другом хоть на край света, - вторят им Вале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и Лариса Ивановна Архиповы. - Быть вместе и не разлучаться - вот наша главная семейная традиция, которую мы передаем своим детям и внукам.

Им, а еще Константину Петровичу и Тамаре Ивановне Новиковым, Виктору Павловичу и Анне Васильевне Масляниновым,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вручил медали «За любовь и верность». На ней изображены Пётр и Феврония, медаль является общественной наградой, которая вручается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прожившим после регистрации брака не менее 25-ти лет, получившим известность крепостью семейных устоев, воспитавшим детей достой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 Для нас, жителей России,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во все времена были и остаются приоритетными,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Антон Зайцев. - Именно на семье держится государство и общество, в ней наши дети получают самое главное – любовь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В регионе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лась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тольк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о на 534 больше. Пусть крепких и счастливых браков станет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а мы сделаем всё, чтобы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собенное счастье таких семей, что они показывают всем, как нужно жить. Не учат, не наставляют, а своим примером, всей своей долгой жизнью в счастливом браке указывают молодым парам на правильный путь, - отметил в своём поздравлении архиепископ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Тихо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러시아 고려인 청소년, 여수 방문

남해화학·여수은현교회 방문.. 모국 발전상과 예배 통해 자부심 가져!

한국교회가 동토 불모지에서 불굴의 정신.. 새 삶 터전 일궈낸 고려인 젊은 새싹들 모국 초청

러시아 고려인 청소년 37명이 모국을 찾아 왔다.

사회봉사단체인 희망꿈나무아카데미(대회장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태풍 '쁘라삐룬'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8 러시아 고려인 청소년 모국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뿌듯한 변화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모국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교회 탐방과 기독교 특강을 통해 교회에 한발 한발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 없다.

이 행사는 2년째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4차례가 진행된다. 지난달 27일 러시아 극동지역 행정 중심지인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지역, 바이칼호수로 유명한 이르쿠츠크주에 사는 고려인 청소년과 교사 등 37명이 방한했다.

이들은 11일까지 경기도 강화와 파주, 고양, 과천, 서울 마포구 외국인 선교사묘원과 용산전쟁기념관, 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등을 찾았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호랑이와 사자, 곰을 보며 흥겨워했다.

부산 해강중학교, 포항 유강중학교 학생들과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함께 부산 일대를 관광한 뒤 각각의 짝궁 집으로 이동해 잠을 청했다. 남해안 일대와 전북 무주 태권도원, 경주의 역사유적, 포항 포스코 등도 찾을 예정이다.

이 단체 회원들은 복음전파에 열심이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부산 예평교회, 임마누엘 교회와 수영로교회에서 러시아어예배를 드렸다.

지난 4일에는 여수 국가산단안에 있는 남해화학 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이광록)를 찾아가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과 고품질 농산물과 건강한 흙을 만드는 과정과 영어 동영상 등을 시청하며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데 감탄과 큰 부러움을 가졌다.

특히 남해화학 이재근 공장장으로 부터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시장은 물론 호주, 일본, 남미 등으로 비료 및 화학제품이 수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감탄사



http://www.newspower.co.kr

와 함께 큰 박수를 받았다.

여수주향교회 집사인 이재근 공장장은 청소년들에게 학용품 등을 전하며 "하나님 사랑과 대한민국이 모국임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로 잘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소년이 돈카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여수 은현교회 최규식 담임목사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 지도 목사 / 손양원기념사업회 이사)가 러시아 고려인 청소년들을 인솔하여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돈카스 전문식당에서 맛있는 돈카스, 치킨카스, 생선카스와 수박 토마토, 자두 등 과일을 배부리 마 음껏 먹게 해주어 큰 환호를 받았다.

이어 은현교회에서 수요밤예배를 청소년, 성도들과 함께 드리며 특별순서로 러시아 노래와 러시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밤에는 여수의 야경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은현교회 부교역자인 김경원 목사와 김성열 목사의 안내로 이순신광장에서 거북선에 올라가서 그 옛날 거북선의 현명함을 볼 수 있고 작은 거북선을 얼마나 많이 띄워서 외적을 물리쳤는지 인솔한 김경원 목사로 부터 산교육을 받았다.

종포해양공원을 방문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등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운 조명 불빛과 여수밤바다의 야경을 보며 그 매력에 연달아 "원더풀"을 외쳤다.

5일 오전에는 여수벤엘교회 등에서 예배를 드렸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들은 매일 새벽예배에도 참석했다. 임마누엘 교회 박동주 청소년 담당목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여수 손양원목사순교지와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을 찾아 올 끝은 신앙

을 배우고 순교신앙에 감격했다.

이들을 인솔하는 희망꿈나무아카데미 운영위원장 이번성 목사는 "이 행사는 지난해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며 "고려인 청소년들이 복음을 접하여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한다.

한편 이 단체 회원 10여명은 지난해 4월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하바로프스크 등을 8박 9일간 여행하다 고려인들의 상황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역사적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의 아픔을 현지 선교사를 통해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외모는 한국인이었지만 한국말을 거의 못했다. 이 때문에 고려인 4~6세 청소년들은 모국에 대한 긍지를 잃어 가고 있었다.

회원들은 뭔가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고려인 청소년들을 껴안고 예수사랑을 전하기로 의기투합해 이 행사를 기획하자, 교회와 기업들의 후원이 잇따랐다.

대회장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은 "한번도 모국에 와보지 못한 동포 청소년들을 초청해 민족정신 회복과 모국사랑이 샘솟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세대로 자라나길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장 이번성 목사는 "한국교회가 동토의 불모지에서 불굴의 정신으로 새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 젊은 새싹들을 모국 대한민국에 초청해 함께 노래할 때..."라며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이 단체에는 정근모 전 과학기술부 장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성호 전 국정원장, 정오석 웰리브투어 사장, 심재환 국제청소년문화교육연맹 이사장,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이상구 전 이사장과 박홍일 명예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은 다음 달 8~24일에도 시베리아 고려인 청소년 40여명을 초청한다. 러시아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 있는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행사도 16~21일, 다음 달 27~31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뉴스파워)

[우리말로 깨달다]

나쁘다와 밎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나쁘다와 밎다는 같은 글자입니다. 우리말에서가 아니라 한자어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자의 나쁜 '악(惡)'자는 미워할 '오'자로 읽히기도 합니다. 즉 같은 글자에 두 가지 발음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자어에는 같은 글자가 다른 소리,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을 전주 문자(轉注文字)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주 문자는 왜 생겨난 것일까요?

한글은 소리글자이므로 같은 글자가 다른 발음이 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물론 같은 소리글자라고 하더라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철자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read'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앞의 한자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서로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단지 한자만 같을 뿐 소리도 의미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주문자들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줍니다. 왜 서로 다른 단어들을 한 글자로 표현하였던 것일까요? 예를 들어 '내릴 강(降)'과 '행복할 향'은 같은 글자 다른 발음, 다른 의미의 전주문자인데, 아마도 자신이 낮게 된다는 의미의 '내리다'와 '행복하다'가 원래 같은 단어였는데 분화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말의 '어리다'가 '어리석다'로 분화가 되거나 '싫다'가 '싫다'와 '슬프다'로 분화되는 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주문자는 의미의 분화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을 글자의 모양은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유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 의미의 연관성입니다. 원래는 하나의 의미였거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의미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위의 예로 돌아가서 보면 '악하다'는 의미와 '미워하다' 라는 의미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나쁜 것, 악한 것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나쁜 것을 싫어하고, 나쁜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만 해도 훨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악의 유혹에 넘어가는가요?

이런 전주 문자들을 앞에다 두고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글자의 의미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빠져리게 반성하고, 나아갈 지표들을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언어와 문자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고 사고입니다.

즐거울 '락(樂)' 자는 전주문자의 대표적인 글자입니다. 풍류, 음악이라고 할 때는 '악'으로 발음되고, 좋아한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요'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산과 물을 좋아한다고 할 때, 요산요수(樂山樂水)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겁다'와 '음악', 그리고 '좋아하다'의 세 의미는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증을 안겨 드립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닭백숙 — 기운 없는 날의 몸보신

백숙은 한자로 흰 백(白)에 익힐 숙(熟)으로 '고기나 생선 따위를 양념을 하지 않고 맹물에 푹 삶아 익힘, 또는 그렇게 만든 음식'이라는 뜻이다. 소, 돼지, 말, 잉어, 도미 같은 고기가 모두 백숙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맑게 끓이는 육류로는 닭이 가장 맛있어 흔히 닭으로 백숙을 만들다 보니 백숙 하면 닭백숙을 떠올리게 되었다.

시원한 계곡물에 땀을 식히고 먹는 맛

닭백숙은 닭을 푹 고아서 그 국물에 찹쌀과 마늘을 듬뿍 넣고 끓인 죽이다. 닭을 오래 끓여낸 국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닭의 영양소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 맛이 좋고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다. 조상들은 복날이 아니더라도 여름철이 되면 하루쯤 날을 잡아 가까운 사람들끼리 얼마씩 추렴해서 뒷산 계곡을 찾았다. 잠시 더위를 잊고 피로도 풀며 영양 보충이나 하자는 뜻에서였다.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濯足)을 한 다음 시원한 나무 밑에 둘러 앉으면 커다란 솔에 삶아낸 닭백숙이 김을 무럭무럭 내며 등장하고, 굵은 소금에 푹푹적이거나 닭살을 발라 먹고 나면 미리 불려둔 찹쌀을 넣고 죽을 끓여 알뜰하게 한 솥을 다비워냈다. 복날 물가에서 백숙을 끓여 먹는 풍습은 여전히 남아 지금도 이렇듯 계곡에는 닭백숙을



죽을 끓여 먹는 것인데, 아예 물에 불린 찹쌀을 압력솥 밑바닥에 깔고 닭고기를 얹어 삶아낸 것이 누룽지백숙이다. 닭국물이 밴 누룽지는 쫄득하면서도 고소해 찹쌀죽보다 맛있는 별미로 통한다.

닭백숙과 삼계탕의 차이

삼계탕은 닭과 함께 황기, 밤, 은행 등 몸에 좋은 다양한 식재료를 넣고 끓인 음식이다. 닭백숙은 다양한 재료를 넣지 않고 닭에 물만 넣고 끓인 음식이다. 두 음식 모두 고기를 먹고 나서 죽을 요리해 먹는 것은 다르지 않다.

(<코리아넷>에서)

만들어 파는 식당이 즐비하다.

쫄득쫄득 고소한 누룽지백숙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약재인 황기나 대추, 밤 등을 넣은 한방백숙이 인기인데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것이 바로 누룽지백숙이다. 백숙은 원래 고기를 먹고 나서 찹쌀을 넣어 죽을 끓여 먹는 것인데, 아예 물에 불린 찹쌀을 압력솥 밑바닥에 깔고 닭고기를 얹어 삶아낸 것이 누룽지백숙이다. 닭국물이 밴 누룽지는 쫄득하면서도 고소해 찹쌀죽보다 맛있는 별미로 통한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아동들을 위해서는 풍선놀이동산 코너에서 아동들 간 경연도 열렸다.

'러시아 홍차의 날'은 경연만 아니라 활동교실도 열어 주취 측은 40리터의 사모와르 두 대에 물을 끓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반차>를 방문객들에게 대접했다. 이날 하루 대접한 차는 470리터에 달했다.

이날은 또한 다가오는 가족·사랑·충실의 날을 맞이하여 결혼기념일을 맞은 부부들에게 축하하고 '사랑과 충실함을 위하여'라는 메달을 수여했다고 우글레고르스크 행정부 측이 전했다.

Углегорцев собрали на "Празднике чая"

В городе Углегорске прошел "Праздник русского чая". Шестой год в первую субботу июля проходит самый масштабный праздник района. На городской площади развернулся сказочный город со сказочными улицами — площадь Раздольная, улица Мастеровая, Блинно-Масляная, Росписная-Хохломская, Богатырская, Портретная, Игровая, "Копорское кольцо", переулок Опробывания.

Самым ожидаемым и долгожданным событи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 конкурс блинопёков, в этом году за звание самых искусных кулинаров и пекарей сразилось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манд за всю историю праздника. 16 команд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и промышленных компаний, инициативные пенсионеры и просто дружные семьи.

Работа команд ежегодно оценивается по двум критери-

ям — высота стопки блинов и количество голосов независимых народных дегустаторов, которые оценивают вкусовые качества угощения.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самая высокая 60-сантиметровая стопка блинов была испечена командой инициативных пенсионеров "Энергия 220 вольт", а победителями народ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были признаны девушки из команды "Солнышко" (детсад №2 Краснополя). Обе команды-победительницы получили переходящий приз — самовар ручной росписи, символ "Праздника русского чая" — награждены грамотами, сертификатами и ценными призам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росписи деревянных заготовок ложек и матрёшек прошел на улице Росписной-Хохломской.

На улице Портретной обустроили тематическую фотозону с огромным самоваром.

Центр событий народного гуляния развернулся на площади Раздольной, на сцене для гостей выступили углегорские вокальные и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Ведущие, они же специалисты районного ДК "Октябрь", не оставили скучать народ и провели веселые конкурсы.

Для детей обустроили зону с надувными игрушками, а рядом проводили детские конкурсы.

"Праздник русского чая" — это не только конкурсы и мастер-классы, это самое масштабное чаепитие — с утра до вечера организаторы "топили" два 40-литровых самовара и угощали гостей душистым иван-чаем — около 470 литров чая было выпито в этот день.

В этот день также чествовали семьи-юбиляры, в честь наступающего праздника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Их поздравили и вручили медали "За любовь и верность", сообщает углегор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т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